

융합 시대의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이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제남주¹, 김정숙^{2*}

¹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Field Practic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ing Efficacy in Convergence Era

Nam-Joo Je¹, Jeong-Sook Kim^{2*}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Changwon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Changwo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G도 J대학 간호학과 173명을 자료수집 하였다. IBM SPSS WIN/25.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돌봄효능감은 임상실습 교육환경($r=.42, p<.001$), 현장실습적응($r=.53, p<.001$), 간호전문직관($r=.42, p<.001$)과 상관관계, 임상실습관련 무력감($r=-.46, p<.001$)과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돌봄 효능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장실습적응($\beta=.330, p<.001$), 그 다음으로, 간호전문직관($\beta=.188, p=.005$), 임상실습 교육환경($\beta=.176, p=.015$), 내성적($\beta=-.146, p=.018$), 외향적($\beta=.134, p=.035$) 순이었다. 설명력은 41.8%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돌봄효능감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무력감, 임상실습교육환경, 현장실습적응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grasp the factors affecting the caring efficacy of senior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73 nursing students at J university in G-do. Analysis was done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IBM SPSS WIN/25.0. Caring 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r=.42, p<.001$), field practice adaptation ($r=.53, p<.001$), nursing professionalism ($r=.42, p<.001$), and negatively correlated to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r=-.46, p<.001$).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subjects' caring efficacy was field practice adaptation ($\beta=.330, p<.001$), followed by nursing professionalism ($\beta=.188, p=.005$),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beta=.176, p=.015$), introvert ($\beta=-.146, p=.018$), and extrovert ($\beta=.134, p=.035$). The explanatory power was 41.8%. Therefore, systematic nursing programs that can enhance caring efficacy are needed. Also, the following data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to help develop caring efficacy programs.

Key Words :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Powerlessnes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Field Practice Adaptation

*Corresponding Author : Jeong Sook Kim(sook707kr@naver.com)

Received November 9, 2020

Revised November 30,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정규교육과정에서 간호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추후 임상이나 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교내실습, 간호이론 및 임상실습에서 배운 것을 통합 적용할 수 있고, 임상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일정수준의 간호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이다[1].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 및 교내실습내용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며 창의력과 역량, 잠재력을 길러주며 개발하는 학습 과정이다[2]. 이러한 임상실습을 통하여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대상자 요구파악과 대처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을 배우고 간호사의 역할과 간호술기를 학습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임상 실습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요구와 노력에 일치되는 실습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3]. 임상실습 교육환경(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E)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것이다[4].

그러나 최근의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대부분 관찰 위주의 임상실습시간이며, 직접 수행하고 간호술기를 학습하며, 임상실무능력을 습득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임상실습하면서 배운 이론과 임상실습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애매한 역할과 미숙한 업무수행, 복잡한 인간관계, 미숙한 대처, 정신적, 신체적 피로 등의 이유로 다양한 신체 및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5, 6], 학생들은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환경에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인지하여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경험하게 한다[7].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란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낮은 환경에서 미숙한 대처와, 의료진의 무관심으로 무력감이나 회의, 우울,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끼는 등[8, 9],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간호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와 더불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배운 지식을 임상실습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대인관계 어려움, 임상실습에서의 간호학생의 애매한 역할로 인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10]. 이러한 무력감은 선행연구[11]에서 성별과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러한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도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12],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 형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13]. 또한, 임상실습적응은 병원이라는 낮은 환경에서 실습하는 자신을 맞추어 적응하는 과정으로[14] 졸업 후 신규간호사가 되어 임상적응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15].

간호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치 있는 행위로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은 올바른 윤리관과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16]. 그러므로 임상실습 교육환경에서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잘 파악하고, 임상실습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호학생들은 다양한 간호현장의 임상실습 교육환경에서 실제로 돌봄 행위를 함으로써 돌봄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통합하고 돌봄 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17]. 돌봄 능력은 간호의 본질이자 핵심이며[18], 돌봄 능력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19]이며, 돌봄효능감은 환자 돌봄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질적으로 환자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이다[20]. 돌봄효능감은 환자와 적절한 공감과 친밀감으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전문적 간호제공 및 임상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편안함과 자신감을 제공한다[20]. 간호대학생이 가진 높은 돌봄효능감은 실습하면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제공한다[21]하므로 돌봄효능감은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이 현장실습적응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임상실습 교육은 지식과 간호술기에 치중하던 과거에서 요즘은 환자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중심으로 도덕적, 윤리적, 경험적 영역이 포함 되어, 간호교육에서 돌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2]. 그러므로 임상실습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돌봄효능감을 향상시켜 임상실습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임상실습에서는 간호사를 모델링으로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돌봄 경험을 통해 돌봄효능감이 향상될 것이다[23]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관한 연구[24-30],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에 관한 연구[3, 11, 31], 돌봄효능감 연구[32, 33]는 있었으나, 임상실습에 대한 돌봄효능감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이들 변수간의 상관성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교

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이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교육 및 임상실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이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돌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G도, J시 일개대학 4학년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학과 재학생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타전공은 제외기준으로 하여 편의추출 하였다. G*power 3.10 프로그램[34]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효과크기(effect size) .15(중간),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변수 17개로 산출한 결과, 적정표본 크기의 최소 인원은 146명으로 산출되었으나 탈락을 20% 산정하여 176명을 초기 대상으로 표집을 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부실한 3부를 제외한 173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제 특성과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제 특성

제 특성은 선행연구[35]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연령, 성별, 종교, 휴학여부, 동아리 활동여부, 거주환경, 부모님 경제력, 성격, 학과적응, 지난학기 성적, 대인관계, 전공만족도의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2.3.2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 교육환경 측정도구는 Dunn과 Burnett [36]가 개발하고 Han [28])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9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교육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Han [2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2.3.3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Miller (1983)가 개발한 도구를 Lee [37]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무력감을 파악할 수 있게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27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아니다.' 1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무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37]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Yeun 등[38]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29문항으로 5점 Likert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Yeun 등[3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 = .84$ 이었다.

2.3.5 현장실습적응

현장실습적응은 Park [3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현장실습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3$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1$ 이었다.

2.3.6 돌봄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Coates(1997)가 개발한 돌봄효능감 측정도구인 Caring Efficacy Scale을 Jeong [39]이 간호대학생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15개의 긍정문항, 15개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 한다(6점)'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Jeong [39]의 연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 = .90$ 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대상자의 자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연구 목적, 진행 절차,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평균 20분이며, 작성 후 설문지 수거함을 통해 수거하였다. 자료는 잠금장치의 보관과일에 따로 저장하며 연구자 외의 접근을 제한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한 후 파쇄할 것이며,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조사자료는 숫자화 하여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비밀과 익명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2.5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은 2020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설문지 배부 전 손소독을 철저히 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대상자와 자료수집자 모두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 보장 및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자율성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종료 후 개인봉투에 담아 연구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는 각각 수거함에 넣도록 하여 익명성을 유지하였다. 연구자, 대상자 모두 손소독을 실시하였다.

2.6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25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

고, 결과에 대한 유의수준은 .05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변수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측정하였고, 변수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으며, 돌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으로 구하였다.

2.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진행된 논문으로 신중한 해석과 주의가 필요하다. G도 일개지역 일개대학교에서 진행하여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일반화함에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제 특성은 살펴보면 연령은 '23세'가 66명(38.2%)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여성' 153명(88.4%), '남성' 20명(11.6%)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없음과 기타' 131명(7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불교' 21명(12.2%)이었다. 대상자 중 대부분은 '휴학 경험 없음' 154명(89.0%)이었다. 거주환경은 '자취 혹은 기타' 70명(40.5%)으로 많았다. 부모님의 경제력은 '중' 148명(85.5%), 성격은 '혼합적' 98명(56.6%)으로 가장 많았다. 학과적응은 '잘 적응' 116명(67.1%)으로 가장 많았다. 학점은 '3.5 이상'이 107명(61.8%)으로 많았다. 갈등경험은 '없음' 95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보통' 112명(64.8%)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yr)	≥22	48(27.7)
	23	66(38.2)
	24	14(8.1)
	25	13(7.5)
	≥26	32(18.5)
Gender	Male	20(11.6)
	Female	153(88.4)
Religion	Christian	16(9.2)
	Catholicism	5(2.9)
	Buddhism	21(12.2)
	None and Others	131(75.7)
Leave of	Yes	19(11.0)

Absence	No	154(89.0)
Circle activity	Yes	48(27.7)
	No	125(72.3)
Living Environment	Living with parents	54(31.2)
	Lodging/Dormitory	49(28.3)
	Cooking oneself/Other	70(40.5)
Economic Power of Parents	Upper	7(4.0)
	Middle	148(85.5)
	Lower	18(10.4)
Character	Extrovert	26(15.0)
	Introvert	49(28.4)
	Mixed	98(56.6)
Department Adaptation	Adapt well	116(67.1)
	Difficult but trying	50(28.9)
	Difficulty	7(4.0)
Last Semester Rating	<3.5	66(38.2)
	≥3.5	107(61.8)
Conflict Experience	None	95(54.9)
	Sometimes/Frequent	78(45.1)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4(2.3)
	usually	112(64.8)
	satisfaction	57(32.9)

3.2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대상자의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평균 3.43점(5점 만점),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평균 2.58점(5점 만점), 현장실습적응은 평균 3.61점(5점 만점),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57점(5점 만점), 돌봄효능감은 평균 4.22점(6점 만점)이었다[Table 2].

Table 2. Subject'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field practice adapt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ing efficacy (N=173)

Variables	Mean±SD	Min	Max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3.43±0.45	1.42	4.74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2.58±0.46	1.20	4.00
Field Practice Adaptation	3.61±0.45	1.78	4.67
Nursing Professionalism	3.57±0.50	2.33	5.00
Caring Efficacy	4.22±0.48	3.20	5.67

3.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교육환경의 경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88, p=.024). 그러나, 사후검증 결과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t=-2.27, p=.024).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무력감이 더 높았다(t=-2.64, p=.009).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39, p=.005), 사후검증 결과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 성격보다 높았다. 학과 적응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77, p=.001). 사후검증 결과 '적응이 힘들다'가 '잘 적응'과 '어렵지만 적응하려고 노력중이다'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점이 '3.5 이상'이 '3.5 미만'보다 무력감이 높았다(t=-3.15, p=.002). 대인관계 갈등이 없는 경우보다 갈등이 있는 경우가 무력감이 더 높았다(t=-2.70, p=.008).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69, p<.001). 사후검증 결과, '불만족'이 '보통'과 '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현장실습적응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높았다(t=2.58, p=.011). 학과 적응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15, p=.007). 사후검증 결과 '잘 적응'과 '어렵지만 적응하려고 노력중이다'가 '적응이 힘들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55, p=.002). 사후검증 결과, 이 '보통'과 '만족'이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의 경우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3.05, p=.050), 사후검증 결과 외향적인 경우 내성적인 성격보다 높았다.

돌봄효능감인 경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고(t=2.41, p=.017), 성격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0.41, p<.001). 사후검증 결과, '외향적'이 '혼합적'보다 높았고, '혼합적'이 '내성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과 적응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33, p=.006). 사후검증 결과 '잘 적응'이 '어렵지만 적응하려고 노력중이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16, p=.003). 사후검증 결과, '만족'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3.4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의 상관관계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임상실습관련 무력감(r=-.53, p<.001)과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현장실습적응(r=.47, p<.001), 간호전문직관(r=.41, p<.001), 돌봄효능감(r=.42, p<.001)과는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현장실습적응(r=-.54, p<.001), 간호전문직관(r=-.37, p<.001), 돌봄효능감(r=-.46, p<.001)과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현장실습적응은 간호전문직관(r=-.31, p<.001)과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돌봄효능감(r=.53, p<.001)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돌봄효

Table 3.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field practice adapt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ing effica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Field Practice Adapt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Caring Efficacy	
		M±SD	t(p)/F(p)	M±SD	t(p)/F(p)	M±SD	t(p)/F(p)	M±SD	t(p)/F(p)	M±SD	t(p)/F(p)
Age(yr)	≥22	3.48±0.35	2.88 (.024)	2.56±0.45	0.27 (.891)	3.59±0.32	0.33 (.857)	3.59±0.41	1.05 (.382)	4.17±0.39	1.30 (.270)
	23	3.49±0.36		2.58±0.44		3.60±0.49		3.60±0.49		4.25±0.48	
	24	3.25±0.39		2.62±0.41		3.46±0.53		3.81±0.35		4.38±0.46	
	25	3.59±0.54		2.48±0.47		3.61±0.55		3.72±0.40		4.40±0.61	
	≥26	3.24±0.65		2.63±0.56		3.53±0.70		3.55±0.48		4.13±0.54	
Gender	Male	3.60±0.56	1.48 (.152)	2.36±0.60	-2.27 (.024)	3.81±0.68	1.71 (.100)	3.61±0.41	-0.07 (.944)	4.46±0.70	1.61 (.122)
	Female	3.40±0.43		2.61±0.43		3.54±0.47		3.61±0.46		4.19±0.44	
Religion	Christian	3.36±0.37	1.79 (.150)	2.56±0.47	0.91 (.433)	3.59±0.60	0.48 (.697)	3.61±0.43	0.30 (.823)	4.17±0.66	0.26 (.848)
	Catholicism	3.11±0.96		2.69±0.34		3.31±0.25		3.57±0.21		4.39±0.64	
	Buddhism	3.59±0.50		2.43±0.38		3.59±0.36		3.70±0.47		4.21±0.48	
	None and Others	3.42±0.42		2.61±0.48		3.58±0.52		3.60±0.46		4.23±0.45	
Leave of Absence	Yes	3.37±0.42	-0.58 (.558)	2.58±0.53	-0.03 (.975)	3.41±0.64	-1.48 (.138)	3.59±0.44	-0.27 (.784)	4.30±0.59	0.66 (.505)
	No	3.43±0.46		2.58±0.45		3.59±0.48		3.62±0.45		4.22±0.47	
Circle Activity	Yes	3.47±0.51	0.80 (.423)	2.43±0.39	-2.64 (.009)	3.73±0.47	2.58 (.011)	3.72±0.45	1.96 (.051)	4.37±0.54	2.41 (.017)
	No	3.41±0.43		2.64±0.47		3.51±0.50		3.57±0.44		4.17±0.45	
Living Environment	Living with parents	3.43±0.42	0.52 (.590)	2.59±0.49	0.17 (.844)	3.59±0.45	0.17 (.843)	3.70±0.38	1.64 (.196)	4.23±0.52	0.26 (.974)
	Lodging/Dormitory	3.48±0.31		2.60±0.41		3.54±0.42		3.55±0.48		4.21±0.38	
	Cooking oneself/Other	3.39±0.55		2.56±0.48		3.59±0.59		3.58±0.47		4.23±0.51	
Economic Power of Parents	Upper	3.30±0.87	0.91 (.402)	2.74±0.40	1.16 (.316)	3.52±0.51	0.47 (.625)	3.61±0.27	1.78 (.172)	4.38±0.53	0.48 (.617)
	Middle	3.42±0.42		2.59±0.45		3.56±0.46		3.59±0.47		4.21±0.46	
	Lower	3.55±0.51		2.45±0.54		3.68±0.79		3.80±0.34		4.27±0.65	
Character	Extrovert	3.35±0.55	1.20 (.301)	2.40±0.47 ^a	5.39 (.005) a<b	3.70±0.59	2.00 (.138)	3.79±0.37 ^a	3.05 (.050) a>b	4.51±0.56 ^a	10.41 (<.001) a>c>b
	Introvert	3.38±0.41		2.74±0.43 ^b		3.46±0.53		3.52±0.47 ^b		4.01±0.41 ^b	
	Mixed	3.47±0.44		2.55±0.45 ^c		3.59±0.45		3.61±0.45 ^c		4.26±0.45 ^c	
Department Adaptation	Adapt well	3.41±0.46	2.55 (.081)	2.53±0.45 ^a	6.77 (.001) a,b<c	3.61±0.48 ^a	5.15 (.007) a,b>c	3.61±0.45	1.81 (.166)	4.30±0.47 ^a	5.33 (.006) a>b
	Difficult but trying	3.50±0.40		2.62±0.43 ^b		3.56±0.52 ^b		3.66±0.44		4.10±0.47 ^b	
	Difficulty	3.10±0.55		3.17±0.42 ^c		3.00±0.36 ^c		3.31±0.45		3.86±0.37 ^c	
Last Semester Rating	<3.5	3.44±0.50	0.20 (.839)	2.40±0.47	-3.15 (.002)	3.63±0.55	1.08 (.279)	3.64±0.47	0.51 (.608)	4.25±0.53	0.47 (.638)
	≥3.5	3.42±0.42		2.74±0.43		3.54±0.47		3.60±0.44		4.21±0.45	
Conflict Experience	None	3.45±0.41	0.83 (.406)	2.50±0.45	-2.70 (.008)	3.62±0.43	1.30 (.195)	3.61±0.45	-0.23 (.816)	4.20±0.44	-0.85 (.396)
	Sometimes/Frequent	3.40±0.50		2.69±0.45		3.52±0.58		3.62±0.45		4.26±0.52	
Majo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3.11±0.86	2.01 (.137)	3.40±0.42 ^a	8.69 (<.001) a>b,c	2.77±0.25 ^a	6.55 (.002) a<b,c	3.48±0.88	1.21 (.298)	3.87±0.35 ^a	6.16 (.003) b<c
	usually	3.40±0.41		2.61±0.41 ^b		3.55±0.46 ^b		3.58±0.44		4.15±0.46 ^b	
	satisfaction	3.50±0.49		2.47±0.50 ^c		3.67±0.54 ^c		3.69±0.43		4.39±0.49 ^c	

능감($r=.42$, $p<.001$)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3.5 돌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돌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돌봄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었던 동아리활동여부, 성격, 학과적응,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교육환경, 임

상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동아리활동여부, 성격, 학과적응, 전공만족도는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단계적(Stepwise) 방식으로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공차 한계가 0.1이상 되는지 확인 한 결과, 공차한계 .66-.94로 다중공선성의 문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field practice adapta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ing efficacy (N=173)

	1	2	3	4	5
	r(p)				
1	1				
2	-.53 ($<.001$)	1			
3	.47 ($<.001$)	-.54 ($<.001$)	1		
4	.41 ($<.001$)	-.37($<.001$)	-.31 ($<.001$)	1	
5	.42 ($<.001$)	-.46 ($<.001$)	.53 ($<.001$)	.42 (.001)	1

1.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2.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3. Field Practice Adaptation
4. Nursing Professionalism
5. Caring Efficacy

제가 없었고, 분산팽창계수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10 이상을 넘지 않는지 확인 한 결과, VIF 1.06-1.51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 Test로 확인 한 결과 $d=1.817$ 로 수용기준에 부합하였다. 대상자의 돌봄효능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장실습적응($\beta=.330, p<.001$), 그 다음으로 간호전문직관($\beta=.188, p=.005$), 임상실습 교육환경($\beta=.176, p=.015$), 내성적($\beta=-.146, p=.018$), 외향적($\beta=.134, p=.035$)순이었다.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41.8%이었다($F=18.64, p<.001$)[Table 5].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caring efficacy (N=173)

	B	SE	β	t	p
(constant)	1.699	.285		5.97	$<.001$
Introvert	-0.157	.065	-.146	-2.39	.018
satisfaction	0.113	.062	.109	1.81	.071
Circle Activity(Yes)	0.060	.065	.056	0.93	.353
Extrovert	0.181	.085	.134	2.12	.035
Field Practice Adaptation	0.315	.066	.330	4.79	$<.001$
Nursing Professionalism	0.200	.071	.188	2.83	.005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0.187	.076	.176	2.46	.015
$R^2= .442, \text{Adj } R^2= .418, F=18.64 \quad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5점 척도에 평균 3.43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이용한 Han [28]의 연구에서 2.75점 보다는 높고, Oh와 Kim [3]의 연구에서 2.99점, Han과 Park [29]의 연구에서 3.09점, Kim과 Yang [30]의 연구에서 3.16점보다 본 연구결과가 높았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29, 30]는 2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Oh와 Kim [3]은 3학년이었으며, Kim과 Yang [30]과 본 연구는 4학년 2학기에 조사하여 모든 임상실습 교육환경 경험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는 임상실습 교육환경 평균은 처음 임상실습을 경험한 것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는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교육의 열악한 현실여건을 반영한 수렴의 결과로 여겨진다. 간호대학생의 최적의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나가기 전 실습기관과 실습병동의 워크샵과 간담회를 통해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평균 2.58점(5점 만점)이며,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3]의 2.96점보다 무력감이 낮았다. 무력감은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내성적인 성격, 학과 적응이 힘든 경우, 학점이 '3.5 이상' 이상, 대인관계 갈등이 있는 경우, 전공에 불만족을 하는 경우가 높았다. 이러한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실습 나가기 전 무력감 감소를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장실습적응은 평균 3.61점(5점 만점), Je와 Park 연구[40]의 4학년 3.54점보다 높았다. 3,4학년 대상 연구[41]에서는 3.16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현장실습적응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학과 적응을 잘 하거나, 어렵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학생이 적응이 힘들다는 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도에서도 '보통'과 '만족'이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실습 전 현장실습적응을 높이기 위한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적응,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이 필요하다.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3.57점(5점 만점)으로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3,4학년 대상 연구[41]에서는 3.55점, Park [42]의 결과인 3.48점보다는 높았다. 3,4학년

대상으로 한 Lee와 Kim [43]의 3.84점 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4학년 대상 연구[24]에서는 3.60점, 간호학과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Ji [44]의 3.70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Kang, Kang과 Kim [45]의 3.7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간호전문직관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이다. 학생들이 받았을 교육의 질, 교육 환경,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음[16]을 추측한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간호전문직관 향상은 학과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임상실습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롤 모델과 현장지도자는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돌봄효능감은 평균 4.22점(6점 만점)이었다.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의 돌봄효능감 Park 연구[46]에서는 4.24점, Park과 Sin [33]에서 4.20점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 성격은 '외향적'이 '혼합적'보다 높았고, '혼합적'이 '내성적'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과 적응에서는 '잘 적응'이 '어렵지만 적응하려고 노력중이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도에 '만족'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돌봄행위가 강화될 수 있다[39]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돌봄효능감은 환자 돌봄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며[20], 개발한 돌봄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임상실습현장은 자신의 돌봄 행동을 모델링할 수 있고 돌봄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현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47].

임상실습 교육환경은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 돌봄효능감과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현장실습적응은 간호전문직관과 역상관관계가 있었고, 돌봄효능감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전문직관은 돌봄효능감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돌봄효능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장실습적응, 그 다음으로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교육환경, 내성적, 외향적순이었다. 설명력은 41.8%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돌봄효능감은 정서적, 대인관계적 요소로 향상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34]를 토대로 전공동아리 활동이나 학과적응, 전공만족도 향상,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최적의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나가기 전 실습기관과 실습병동의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임상실습 교육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전략과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감소와 현장실습 적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내용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함에 제한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도, J시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돌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 간호교육 및 임상실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돌봄효능감은 임상실습 교육환경, 현장실습적응, 간호전문직관과 순상관관계가 있으며,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돌봄효능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현장실습적응, 그 다음으로 간호전문직관, 임상실습 교육환경, 내성적, 외향적순이었다. 설명력은 41.8%이었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전공동아리 활동이나 학과적응, 전공만족도 향상, 간호전문직관 향상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감소와 현장실습 적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개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이므로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으므로 전학년에 걸친 돌봄효능감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상자를 확대하여 돌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경로분석 및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추가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대상자의 돌봄효능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추가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J. Kang, J. O. Kim, H. S. Kim, S. Y. Yoo, S. O.

- Choi, & H. M. Hwang. (2016). Effects of the self-observation method of essential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elf-confidence, and practice satisfac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9)*, 227-241.
DOI : 10.22251/jlcci.2016.16.9.227
- [2] T. Locken, & H. Norberg. (2005) Reduced anxiety improves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rough utilization of mentoring triad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8(1)*, 17-23. DOI : 10.14370/jewnr.2018
- [3] Y. K. Oh, & E. Y. Kim. (2018). The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4(1)*, 36-43.
DOI : 10.14370/jewnr.2018.24.1.36
- [4] D. Chan. (2001).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tool to assess hospital learning environments. *Nurse Education Today, 21(8)*, 624-631.
- [5] J. E. Lee, & S. L. Kim.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6]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7] K. H. Lee. (2010).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1)*, 26-34.
- [8] M. Y. Park, & S. Y. Kim. (2000). A study on the firs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6(1)*, 23-35.
- [9] J. W. Park, & N. S. Ha. (2003).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Nursing, 12(1)*, 27-35
- [10] J. J. Yang, & M. Y. Park. (2004).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0(2)*, 271-277.
- [11] Y. K. OH. (2016).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12] C. H. Kim, & J. Y. Kim. (2019).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5-16.
DOI : 10.5977/jkasne.2019.25.1.5
- [13] K. M. Lim, & E. J. Jo.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56-566.
DOI : 10.5762/KAIS.2016.17.4.556
- [14] S. Y. Kang. (2016). The social adjustment proc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1(0)*, 9-19.
- [15] S. Y. Kim, & Y. S. Shin. (2018).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9)*, 234-242.
DOI : 10.5762/KAIS.2018.19.9.234
- [16] C. H. Kim, & J. Y. Kim. (2019).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1)*, 5-16.
DOI : 10.5977/jkasne.2019.25.1.5
- [17] S. A. Lee, & H. J. Park. (2018).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Korean version of the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instructor caring (K-NSP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2)*, 218-226.
DOI: 10.5762/KAIS.2018.19.12.218
- [18] S. Y. Park. (2018). Impact self-reflection, ego stat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ar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0)*, 379-387.
DOI : 10.14400/JDC.2018.16.10.379
- [19] S. Y. Park. (2019). Impact self-leadership, caring ability, self-efficacy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0)*, 395-403.
DOI : 10.14400/JDC.2019.17.10.395
- [20] C. Reid, M. Courtney, D. Anderson, & C. Hurst. (2014). The caring experience: testing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aring efficacy scale.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21(6)*, 904-912.
DOI : 10.1111/ijn.12327
- [21] S. G. Kim, & E. S. Do. (2019). A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8)*, 231-239.
DOI : 10.5762/KAIS.2019.20.8.231
- [22] S. Y. Pak. (2015). *Development of a Program for Improving Caring Abilities in Clinical Practice and the Effects of the Program's Application*. Doctor's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23] S. G. Kim, & E. S. Do. (2019). A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8)*, 231-239.

- DOI : 10.5762/KAIS.2019.20.8.231
- [24] S. Y. Kang. (2019).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resilience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emotional labor.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8)*, 181-198.
- [25] J. A. Hong. (2019).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incivility perceive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professional self concept.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5)*, 167-183.
DOI : 10.22251/jlcci.2019.19.5.167
- [26] M. K. Jeon, & M. Y. Han. (2019). The relationship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incivility, emotional intelligence,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9)*, 949-964.
DOI : 10.22251/jlcci.2019.19.19.949
- [27] S. O. Shin. (2017). Relation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19-24.
DOI : 10.22156/CS4SMB.2017.7.6.019
- [28] J. Y. Han. (2010).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CL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12(5)*, 2595-2607.
- [29] J. Y. Han, & H. S. Park. (2011). Effects of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3)*, 365-372.
- [30] E. Y. Kim, & S. H. Yang. (2015).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4)*, 417-425.
DOI : 10.11111/jkana.2015.21.4.417
- [31] S. S. Hong, & M. J. Park. (2014).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2)*, 369-377.
DOI : 10.5392/JKCA.2014.14.12.369
- [32] S. Y. Park. (2019). Impact self-leadership, caring ability, self-efficacy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10)*, 395-403.
DOI : 10.14400/JDC.2019.17.10.395
- [33] E. J. Park, & S. J. Shin. (2018).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aring 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6(2)*, 15-25.
DOI : 10.17333/JKSSN.2018.6.2.15
- [34]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 A. G. Lan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 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DOI : 10.3758/BRM.41.4.1149
- [35] S. Y. Park.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Instrument for Nursing Students*. Docto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 [36] Dunn, S. V, & Burnett, P. (1995).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Sca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2(6)*, 1166-1173.
- [37] K. H. Lee. (2010).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1)*, 26-34.
- [38] Yeun, E. J, Kwon, Y. M, & Ahn, O. H. (2005).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091-1100.
- [39] J. O. Jeong. (2016). *The Effect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Empathy, Interpersonal ability, and Caring*. Docto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40] N. J. Je, & M. R. Park. (2018). Impact on department adaptation of field practice adaptation, college adaptation, and awareness of dea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0)*, 300-312.
DOI : 10.5762/KAIS.2018.19.10.300
- [41] G. O. Noh, & M. S. Kim. (2018).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emotional regulation on college life adjust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4)*, 424-432.
DOI : 10.5977/jkasne.2018.24.4.424
- [42] H. J. Park. (2015).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2)*, 227-236.
DOI: 10.5977/jkasne.2015.21.2.227
- [43] H. N. Lee, & J. H. Kim. (2016). The influencing factors of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292-300.
DOI : 10.5762/KAIS.2016.17.8.292
- [44] E. K. Lee, & E. J. Ji. (2016).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and attitude towar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3(2)*, 126-135. DOI : 10.7739/jkafn.2016.23.2.126
- [45] H. S. Kang, Y. S. Kang, & Y. M. Kim.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ego resil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senior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4),
219–229.

- [46] J. W. Park. (2020).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aya University Majored in Nursing.
- [47] S. G. Kim, & E. S. Do. (2019). A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8)*, 231–239.
DOI : 10.5762/KAIS.2019.20.8.231

제 남 주(Nam-Joo Je)

[정회원]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임신·분만, 수태 전 관리, 성교육, 여성건강.
- E-Mail : jnj4757@cs.ac.kr

김 정 숙(Jeong-Sook Kim)

[정회원]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0년 11월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시뮬레이션, 간호연구, 간호기초
- E-Mail : sook707kr@naver.com